

# 夫婦關係의 家族心理學的 理解

## A Theoretical Stud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based on the Concepts of Family Therapeutic Psychology

송의여자 전문대학 가정과

조교수: 정 애 랑

*Dept. of Home Economics*

*Soong Eui Women's Junior College*

*Assitant Professor : Chung Ae Rang*

### 목 차

- |                      |                    |
|----------------------|--------------------|
| I.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기능의 변천 | IV. 부부관계 문제의 해결 방향 |
| II. 가족심리 이론의 발전      | 1) 接近과 회피          |
| III. 기능적인 가족모형과 부부관계 | 2) 혼인에 관한 카운슬링     |
| 1) 부부간의 갈등           | 3) 가족관계의 관점 확대     |
| 2) 배우자 한 편의 기능 장애    | V. 맺는말             |
| 3) 子女의 손상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society, nowadays, is in a state of transition, and the family, which must always accomodate to society, is changing with it. And because of transitional difficulties, the family's major psychosocial task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is, the family will change, but it will also remain because it is the best human unit for rapidly changing societies. Under the circumstances, a healthy marital interaction is still the key to optimal family process,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is also the basis of the parental one.

This paper aims to study a conceptual schema of family functioning chiefly concerned with marital relationship based on the family therapeutic psychology, the systematic approaches of which have been recently developed. Subsequent to the importance of spouse fun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functioning family, the marital tension as a cause of marital problems and the theoretical approaches that will allow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re also explained in this paper. On the otherhand, the sexual dysfunction, one aspect of a wider set of marital problems, and problems of dysfunctional children are not discussed in detail, because these problems shall become specialized fields.

By this paper, it is expected to find a clue to the emotional and psychosocial aspects of marital problems, which will help us have a broader viewpoint in the study of family relationship.

I.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기능의 변천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산다는 것은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으로서 사람은 어느사회에서나 그 사회적 조건에 예속되어 살아왔다. 사회가 나르면 그 사회적 조직과 기능 분화의 정도가 다르게 되며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보다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 사회구조가 분화된다. 현대의 도시 산업문명은 두가지 상충되는 요구, 즉 고도로 전문화된 기능을 개발하는 능력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여건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가족이 갖는 기능에는 두개의 상이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을 심리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외부적으로 어떠한 문화에 대하여 적응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나 이러한 가족의 기능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여 왔으며 사회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족이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는 담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대 도시 산업 사회는 이러한 가족의 기능에 개입하여 원래는 가족의 기능에 속하였던 많은 기능을 떠맡아서 수행한다. 노인이 사회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사회가 사회 복지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mass media, 자기 동료 집단을 통해서 학습하며 기술의 발전 및 가정노동의 사회화로 여성들의 가정 노동의 비중과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부부 쌍방이 가족 밖에서 활동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가족 외적관계가 부부간의 문제를 조장, 격화 시킬수 있는 상황을 가져왔다.

환언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도 변화하며 최근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시로그 가족도 과도기에 처해 있어 여러가지 침해를 받고 있다.

1970년대는 여러가지 분쟁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중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아직까지 없었던 가족 외적 사회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대규모의 탁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세대 차도 그 한 예로서 가족이 일찍부터 자녀에 대한 사회화 교육의 일부를 포기하고 자녀의 지도와 교육을 학교, mass media 등이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가 적절한 가족 외적 소스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아직도 가족과 가족 외적 조건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과도기적인 상황을 병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다. 행복한 가족 생활의 기준을 남녀가 혼인한 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정도의 전설적인 가치에 둔다면 어떠한 가족의 생활도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서구 사회가 과도기에 처해 있으며 항상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족은 사회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의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족구성원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주된 임무가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가족이 변화할 것이나 가족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것은 가족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최선의 생활 단위이며 또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만이 변화에 적응하고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성장시키고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현대 사회의 가족은 여러가지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가중 의지의 시대라고도 하지만 반면에 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더 현충 유연성과 순응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면 할수록 가족은 오히려 사회적인 발전 매체로서 더욱 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는 종래 제도적, 구조 기능적, 상황적, 형태적 또는 상호작용, 발달 과정 등의 면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심리 사회적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방법과 이론이 종합된 방법인 가족치료 이론의 연구는 근래에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범주를 일본 학계의 예에 따라서 가족 심리학의 대상으로 보고 가족 관계 특히 그 기본이 되는 부부 관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등에 대한 임상 이론적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한 가족 관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가족 심리이론의 발전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연구 대상으로하는 심리학은 종래 아동 심리학이나 청년 심리학을 포괄하는 발달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성장 발달 요인 내지 조건으로서의 가족을 취급하여 왔다. 또한 소년 비행, 정신 질환등의 병리 현상을 다루는 임상 심리학, 이상 심리학, 사회 심리학등의 분야에서는 문제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심리학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하였다.

가족 심리학의 근거가 되는 가족요법은 여러가지 방법과 기법을 포괄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서 구미에서 일반 심리학과는 독자적으로 비교적 새롭게 발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구미의 연구 성과를 개별적으로 흡수 연구하여 오던중 1980년대에 와서 일본 심리학회와 별도로 일본 가족 심리

학 연구회가 조직되고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가족요법의 여러가지 방법들과 이론 체계의 차이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살펴 봄으로써 그 내용을 분명하게할 수 있는데 P.J. Guerin (1976)의 다음과 같은 그룹에 의한 분류가 보다 보편적이다 즉 구조론적 그룹(Minuchin Aponte, Montalvo),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적 그룹(Satir, Haley, Weakland, Fisch, Watzlawick), 역동적인 그룹(Ackerman, Bloch, Framo, Boszormenyi-Nagy), 경험주의적 그룹(Kempler, Duhl), 순수 구별론적 그룹(Bowen, Fogarty) 등으로 구별한다. Guerin (1976)에 의하면 1970년에는 시스템적 견해가 소수의 견해에 불과 하였는데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두가지 중요한 연구는 Bateson을 위시한 California communication 이론가들의 연구와 Murray Bowen의 연구였다. 그러나 그후 반대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주변적인 것에서 핵심적인 방법으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Guerin (1976)은 구조론적인 학파와 전략논적인 학파, Bowen 학파는 시스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와 반대로 역동적, 경험론적인 학파는 대체로 정신역학적이고 그룹 분석적인 요법과 또한 형태 심리학적 요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Guerin의 관점에 관하여 S. W. Skinner(1979)는 한 치료 방법으로서의 가족요법은 일반적인 시스템 이론에 그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분류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기능장애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이 변화되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가족치료 학파(역동적, Bowenian적, 경험론적)와 기능장애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가족의 행동 패턴을 변화하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가족치료학파(전략적, 커뮤니케이션적, 행동주의적 학파)로 대별하고 구조론적인 학파는 절충적인 학파로서 임상면에서 Ackerman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 Minuchin이 이

에 속한다고 한다.

Guerin(1976)에 의하면 Minuchin은 전략적 시스템 치료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현재의 증세에 대한 초점, 역설의 활용이라는 개념에 덧붙여 가족의 특징과 범위, 삼각 관계와 같은 구조적인 개념등을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Minuchin(1985)의 연구가 전략적 치료론의 연구 보다는 광범위 하지만 감정상의 기능 장애에 관하여 광범위한 시스템 이론을 발전시킨 Bowen의 연구 보다는 범위가 좁다. Bowen은 3 내지 4 세대적인 가족관에 입각하여 삼각 관계, 부부간의 융합 및 상호 관계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족치료 이론은 여러가지 분류가 가능하며 여러가지 이론이 점차 시스템 이론과 관련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Ⅲ. 기능적인 가족 모형과 부부관계

정상적인 가족을 비 정상적인 가족과 구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점 만으로 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는 가족의 기능과 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적인 특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S. Minuchin(1985)은 가족의 기능과 관련하여 가족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첫째 가족의 구조는 변화 과정에 있는 사회 문화적 시스템의 일부이고 둘째 가족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하면서 재 구조화하며 셋째, 가족은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심리 사회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순응한다. 위에서 가족을 사회 문화적인 시스템의 일부라 함은 가족을 상호 교섭적인 패턴을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견해에서 그 시스템안에 다시 부부 관계,

모자 관계등과 같이 상이한 하위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부부 관계는 이러한 하위 시스템의 하나이며 자녀가 출생하면 이러한 부부 관계와는 별개의 부모 자녀관계의 시스템이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기능적인 특징을 S. Minuchin(1985)의 견해에 따라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적인 가족은 오랜 시일을 두고 순응하고 재 구조화 하면서 계속 기능을 다 한다. 둘째, 그 가족의 특정한 구조가 있으나 동작 중에만 이를 알 수 있고 선호하는 패턴이 있으나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가족 시스템의 저력은 對 内外의 여건 변화로 가족의 재 구조화가 필요할 경우에 비 정상적인 상호 교섭적인 패턴이 동원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위 시스템간의 구분이 명백하지만 여건이 변하면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이다. 셋째 정상적인 가족은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재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에 적응한다. 어느 가족이 스트레스에 대해 적응할 탄력성이 없으면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한편 M Bowen과 같이 시스템론적 개념을 따르고 있는 F Fogarty(1976)는 기능적인 정상 가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변화를 반길 수도 있는 일종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변화에 직면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homeostatis)와 구별된다.

(2) 情動的인 문제는 가족 단위에 있고 가족 구성원 각자에는 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각자의 정동적인 문제와 같은 것은 없다.

(3) 다른 태도와 의 관련도(connectedness)가 여러 세대와 모든 가족 구성원 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4) 최소한의 정동적인 융합(fusion)이 있으며 정동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5) 부부와 다른 사이에 맺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3자와 삼각 관계를 맺어 그 제3자가 분쟁을 조성, 판단하거나 해결하는 일이 거의 없다.

(6) 개인간의 차이를 관대하게 볼 수 있을뿐 아니라 고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7) 각 가족 구성원은 사고 시스템과 가족중 다른 구성원의 정동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다루면서 행동할 수 있다.

(8) 각 가족 구성원은 스스로 기능적인 면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시와 分化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9) 가족 각 구성원이 정동적인 공허감(emptiness)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자 스스로의 공허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타인으로 부터 보충하려 하지 않는다.

(10) 정서적인 분위기의 적극적인 유지가 하여야 할것과 옳다고 생각하는것 보다 우선한다.

(11) 가족 내부의 기능은 각 구성원이 서로 함께 오래 살 만한 가치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12) 가족 구성원이 가족중 다른 구성원을 적대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피드백과 학습의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떠한 가족 상황을 이상과 같이 기능을 다하는 가족 모델과 비교할 때에 기능과 기능 장애의 겹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의 하위 시스템인 부부관계는 남녀가 한 가족이 될 것을 목적으로 혼인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는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의무가 따르며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된 요체는 상호간에 보완하고 순응 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한 편의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기능을 지원 보완해주는 패턴을 익히도록 하되 양보한다는 느낌을 갖

지 않고 순응하여야 한다.

부부 관계는 외부로 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피난지가 되고 다른 사회적인 시스템과 접촉하는 매개로 될 수 있으며 부부의 학습, 창조력, 성장이 촉진되고 서로 순응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상대방 배우자의 우수한 특성을 들어 나게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부부 상호간의 부정적인 면이 조장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대신에 새로운 기준을 내 세우고 상대방이 태도를 고치도록 주장한다.

M Bowen은 (1982) 가족관계의 기능에 관련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자아의 미분화 상태를 의미하는 융합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부부관계의 문제도 다른 모든 가족 시스템의 기능과 같이 융합의 정도가 심하여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을때 발생하며 분화의 수준이 낮을 수록 정동적인 융합의 정도가 커지며 어느 한편의 배우자가 공동 자아를 대신하는 지배적인 의사 결정자가 되고 다른 배우자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아 분화의 수준이 자기와 같은 정도의 사람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

융합으로 인하여 부부의 一方 또는 雙方에게 불안이 생기며 이와같은 융합증세에 따른 가장 보편적인 심리기제는 서로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회피 현상이다.

그 밖에 혼인 생활중에 부부의 情動的인 未分化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 현상으로 부부간의 갈등, 어느 한편의 배우자의 질병 또는 기능장애 및 아이들의 情動的인 손상현상등을 들 수 있다.

### 1) 부부간의 갈등

부부중 어느 한편도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순응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부 관계가 갈등이 있는 부부 관계의 기본 패턴이며 여러가지 관계중에서 표면상 감정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갈등시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적극적 인 감정만큼 적하고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생각하게 된다. 情動的인 未分化 요인이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혼인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감정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체로 부부간의 情動 프로세스 밖에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문제 투사현상이 함께 생길 경우에는 이투사 과정이 자녀에게 해를 입힌다. 한편 표면에 나타난 갈등의 정도만큼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던 情動的인 未分化 요인이 줄어 든다.

## 2) 배우자 한 편의 기능 장애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未分化 요인을 한편 배우자가 순응하는 자세로 흡수할때 그 결과로 생기는 현상이며 한쪽 배우자가 순응하는 정도는 서로 오랫동안 기능하는 자세에 의하여 결정되며 부부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하여 순응하고 있으면서 각기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보통이다. 오랫동안 순응하는 자세로 기능하는 배우자는 점차 스스로 기능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만 증가하여도 순응하는 배우자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직접 동기가 되며 이 기능 장애는 음주, 충동적인 행동, 무책임한 행동 등과 같은 육체적, 정서적 또는 사회적인 질환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질환은 만성화가 되기 쉽고 역전시키기 곤란하다. 이러한 心理機制는 또한 未分化 요인을 흡수하는데 놀랍도록 효과적이지만 배우자 한편에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상대방이 그 기능을 보충한다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 이러한 혼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며 기능하지 못하는 배우자는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過機能하는 배우자는 불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기능 장애와 부부간의 충돌이 겹치지 않는한 거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 過機

能 배우자가 뜻 밖에 사망하고 기능 장애를 받던 배우자가 기능을 기적으로 되 찾은 예가 있으나 재혼할 경우에는 그 전의 혼인 패턴을 따르게 된다.

## 3) 子女의 손상

夫婦의 未分化 요인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생활 패턴으로서 그 결과 자녀에게 종대한 情動的인 손상을 입히고 만성적 신체 질환이나 불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한 가족내에 자녀가 많은 경우에도 모든 자녀가 똑같이 손상을 입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투사과정의 구체적인 요인은 부부간의 미분화 수준, 임태와 출산시 불안의 정도, 혼인과 자녀에 대한 부부의 자세등을 들 수 있다.

## IV) 부부관계 문제의 해결 방향

### ○ 부부관계 요법의 발전

가족 요법의 여러 학파가 서로 보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같이 여러가지 가족요법이 부부관계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二者 관계(dyad)에 쉽게 활용되는 행동요법적 방법이 부부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부부관계 요법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서 종래 個人的인 치료에 치중하던 부부관계 문제 해결이 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心理力學的過程(psychodynamic process)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相互作用的(interactional) 과정의 측면이 중요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 Crafoord (1980)는 알콜 중독인 夫가 치료된 후에 혼인 관계의 파탄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相互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부관계 요법에 대하여 M Crowe (1978)는 4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세가지 방법 중에서 行動요법의 하나인 指示療法가 가장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Barker 1986).

1. 指示療法 (directive approach)

Operant 조건부 치료법을 이용하는 행동 요법으로서 상대방의 positive behaviour 의 촉진을 도모한다.

② 해석 요법 (interpretative approach)

Skygger (1970) 가 주장한 방법으로 부부간의 감정의 分析해석에 치중한다.

③ 支持 억제요법 (supportive control approach)

조언이나 해석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 行動療法과 비판

행동요법은 부부간의 갈등을 夫婦 一方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여러가지 행동의 강화 (reinforcement)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며, (여기서의 강화는 행동의 증가에 따르는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행동의 근원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바람직 하지 않은 행동이 계속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와같이 행동요법은 부부 관계가 強化隨伴 (reinforcement contingencies)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Knudson 등과 같이 心理力學的인 측면을 강조하여 부부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증진을 도구적인 行動에 관한 약속보다 중요시 하는 주장도 있다.

Leadbetter 와 Farber (1983) 에 의하면 도구적인 약정 (instrumental contracting) 에 의한 행동 훈련은 부부의 태도가 서로 소극적이거나 강제적인 자극으로 별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으며 표면상의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 역할 학습 (role taking) 을 촉진하고 각 배우자가 상대방과 상대방 행동의 이면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Kirschner and Kirschner (1986) 의 가족 요법 모델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시스템 개념, 행동 요법, 개인 치료법 등이 복합된 다양한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 시스템 개념과 부부관계 문제해결 방향

이상과 같은 부부 관계 요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최근에는 어느 특정한 요법의 적용 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에 의한 접근 방법이 보편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여러가지 방법에 공통된 보편적인 개념은 시스템 개념이다. 부부요법의 대상이 단순한 marital partner 보다는 marital system 으로 초점이 이행됨에 따라서 시스템 개념은 이미 어느 한 파의 이론이라기 보다는 전략론적, 구조론적, 또는 확대 가족론적요법등 커뮤니케이션이론을 강조하는 모든 부부요법의 공통된 개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부부요법의 구체적인 방법은 생략하고 보편적인 시스템론적 개념에 입각한 부부관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Fogarty (1976) 는 시스템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부부 관계 문제의 개념적 해결 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接近과 회피의 원리, 情動 (emotion) 시스템의 기능적 대응에 대한 인식, 확대 가족으로의 가족 관계 관점의 확대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부부요법의 개념적 해결 방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윤리 개념, 특히 夫婦有別, 家內和穆 조상에 대한 계례 의식, 孝親概念 등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1) 接近과 회피

두 사람이 혼인하면 서로 상대방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겨서 조정이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조정형태가 접근과 회피의 형태이다.

한 배우자가 어느 분야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리하려는 자 (distancer) 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추적하는 자 (pursuer) 가 되며 어느 분야에서의 추적자가 다른 분야에서는 멀어지려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자는 비난과 공격을 하게되고 회피하는 자는 방어한다. 추적자가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록

보다 더 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치료자는 추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적인 감히감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추적자는 거리를 두는법을 배우고 자기 배우자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하게 된다. 거리를 유지하는 사는 정신을 되 찾게 되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리를 두는 자가 누구로 부터 추적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면 자신의 고독감과 자기 배우자를 잃게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 때에 치료자가 추적자를 상대로 노력하면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이 双方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해소의 결과가 오기 전에 과거의 잘못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로서 변화의 기회를 갖게하여 혼인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한다. 충돌이 표면화 된 부부 관계의 경우에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제도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고 계기만 있으면 양자간의 관계가 폭발하기 쉬우므로 토의 제목이나 동작의 방향은 부부 관계와 먼 것이어야 하며 부부의 관심의 초점을 두 사람의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돌리게 하여 갈등 상태에 있는 관계를 냉각시켜야 한다.

부부 관계의 위기는 어느 일방이 혼인외의 애정 관계를 가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삼각관계는 두 사람간에 감정의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옮긴다.

## 2) 혼인에 관한 카운슬링

혼인에 관한 카운슬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들 수 있다. 첫째 부부가 함께 가든지 또는 따로 가든지 간에 부부가 한 치료자에게 가야 한다. 각자가 다른 카운슬러를 각기 만나면 혼인의 파탄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어떠한 관계가 가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

면 그 관계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흔히 자녀 때문에 함께 산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실제로 함께 사는것이 아니며 이 경우 함께 사는것이 자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부一方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원하면 다른 배우자에게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 경제적인 이유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치료자는 부부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의 내면적인 문제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혼인 관계의 문제는 여러가지 악감과 분노와 피해의식이 따르며 때로는 상대방의 불의를 용서하고 잊으려고 하나 별 효과가 없다. 만일 夫가 혼인외 관계를 갖고 妻가 이를 잊지 못하는 경우 妻는 자신이 그 관계에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妻는 夫로 하여금 그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거나 그러한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그 관계 이전에 부부 사이에 생긴 심리적인 거리감 조성에 50%의 역할을 한 것이며 이와같이 妻가 자신이 관련된 역할을 인정하면 패배감을 갖지 않게 된다. 부부 싸움에서 「하여야 한다」든지 「공정」 「옳다」 「그르다」 「잘못」 등의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러한 말은 부부가 감정 관계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감정 문제를 公正과 정당성이라는 상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것 처럼 다루고 있으나 가족 사이의 情動的인 감정 관계란 옳고 그른것과는 관계가 없는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것이 중요하다. 情動的 시스템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기능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3) 가족 관계의 관점 확대

보다 넓은 가족 관계를 조사해 보지 않고는 부부 관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대체로 인간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로 부터 자신의 장래 혼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통상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출생한 가족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전의 가족 관계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포함시키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배제하려고 하지만 행동하고, 바라고, 믿는것의 많은 부분이 자기 부모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父母 代의 가족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곤란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의 혼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의 한 세대를 소급하여 그들의 父母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父母의 확대 가족에서 얻은 모든 인식은 자신의 혼인 생활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 부모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아이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자녀를 의식하게 되며 자기 부모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때로는 자신의 핵 가족 관계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갖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상황과 감정적인 부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3 세대에 걸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 문제의 형태로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부모가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그들의 관계는 정상이고 자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자녀에게서 문제의 낙인을 벗기기 위하여는 아이에 대한 관심의 밀도를 줄이도록 하여야 하지만 子女 중심의 부부 관계에 개입할 경우에는 아주 신중히 하지 않으면 가족간의 감정적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두가지 감정이 있으며 그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다. 부부 관계가 때로는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으며 감정 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

각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로 부터 여러가지 면

에서 자신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며 그 결과 갈등이나 병적 증세로 나타난다. 갈등이나 병적인 증세로 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미봉책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허감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부 관계에 예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적은 스트레스에도 상처를 받기 쉽다. 공허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공허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이와같이 하면 자신의 감정이 항상 자기 부모대의 확대 가족 관계로 자신을 되돌아 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되며 자신과 부모의 가족 관계에서의 공허감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감정 상태의 심상을 확대한다. 처음에는 부부 각자가 이러한 감정을 혼자 간직하고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후에는 이러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자신의 공허감을 상대방으로부터 충족하려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을 살펴볼 수 있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공허감이 자신과 부모 세대를 포함한 확대 가족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면적인 마음의 평안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어 예민한 상태가 사라지고 문제를 보다 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공허감은 심상의 바탕으로 변하고 그 이상 타인을 이용하여 공허감을 충족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가족 관계에서 자아의 자유가 허용되는 감정적인 상태를 갖게 된다.

## V. 맺는 말

건전한 부부 관계는 바람직한 가족 관계의 기본 조건이며 동시에 부부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의 기본이 되므로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로서도 효과적인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행동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부부간의 정동적인 긴장과 관련이 있다고 Barker (1986)는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夫婦 관계를 종래의 제도적, 외형적인 관점을 벗어나 새로이 심리적 情動的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歐美에서 발달하여 온 가족 요법 내지 가족심리학적 임상이론의 성과에 따라서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性的인 문제와 子女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부부관계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부부간의 性的 기능 장애, 부적응 아동의 문제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중요한 과제이므로 본 연구의 검토 범위에서 제외 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 실태조사 결과와 임상 심리학적 연구 성과등을 반영하여 더욱 보완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朴性洙 :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치료.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1979, p29  
 2) 朴宗홍 : 한국적 가치관. 교학사 1982

3) 정애량 : 가족 심리에 관한 가족치료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3  
 4) 家族臨床心理の展望, 日本心理學研究會 1984, pp1~3  
 5) 心理學 辭典, 誠信書房. 東京 1986, p153  
 6) Barker P: *Basic Family Therapy*. Collins, London 1986, p226  
 7) Bowen M: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New York 1982 ~ 379  
 8) Forgaty TF: *Marital Crisis in Guern* PJ (ed) *Family Therapy*. Gardners New York 1976, pp149~150  
 9) Guerin PJ: *Family Therapy*. Gardners. New York 1976, pp18~20  
 10)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London 1985, p147, p51, p56, pp65~66  
 11) Minuchin S: *Family Kaleidoscope*. Havard. Cambridge 1984  
 12) Kirschner DA and Kirschner S: *Comprehensive Family Therapy*. Brunner / Marzel New York 1986  
 13) Skinner SW (ed) : *Family and Mirital psychotherap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9 p2